

SERI 경제 포커스

2005.1.10 (제23호)

노후불안과 소비부진

목차

FOCUS	1
1. 노후불안감 확산	
2. 노후불안과 소비	
3. 대응방안	
주간 금융지표	12
주간 경제일지	13
경제통계	14

작 성: 이지훈 수석연구원
(jeehoon.lee@samsung.com)
02-3780-8037
책임편집: 장재철 수석연구원
(jaechul@seri.org)
02-3780-8076

1. 노후불안감 확산

조기퇴직과 청년실업으로 노후생계 불안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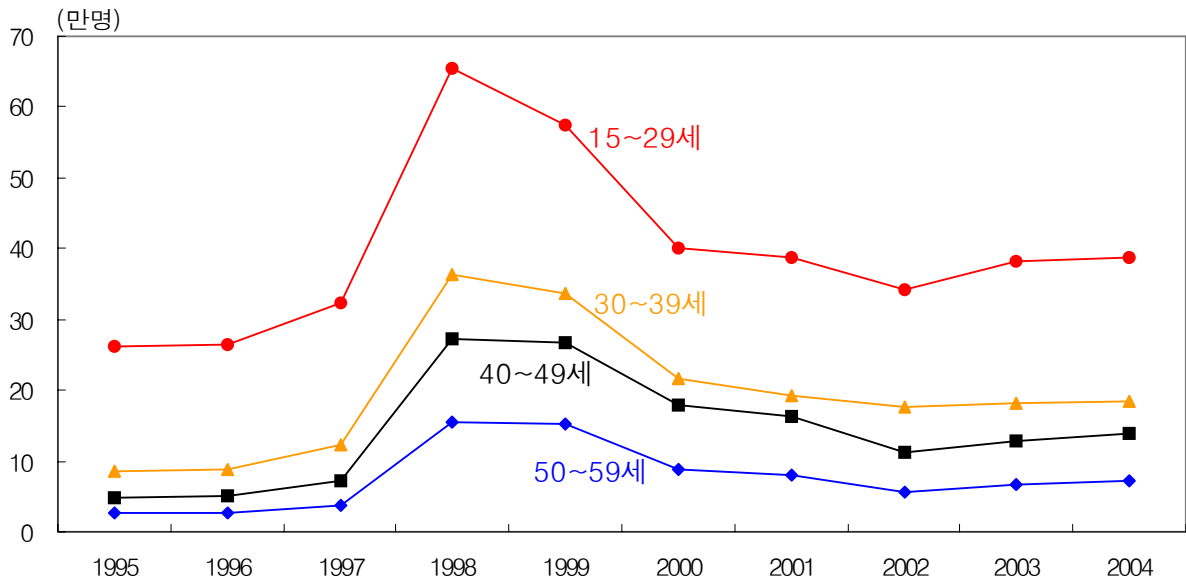
□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조기퇴직이 만연

-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던 30대 이상의 실업자가 2003년이래 증가세로 반전
- 2003년 중 30대 실업자 수는 18.2만 명으로 전년대비 2.6% 늘어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40대와 50대 실업자도 각각 12.8만 명과 6.6만 명으로 15.0%와 17.3% 증가
- 2004년 1~11월 중에도 30대, 40대, 50대의 실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9.0%, 10.7% 증가
- 조기퇴직이 만연되면서 '육이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고용불안감이 확산
- '육이오'는 '62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오직 중의 하나,' '오륙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는 의미
- '사오정'은 '45세가 정년,' '삼팔선'은 '38세까지 일하면 선선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지칭

□ 전체 실업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청년실업자도 200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 2003년 중 청년실업자 수는 38.3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2.2% 증가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
- 청년실업자는 15~29세의 실업자를 의미
- 청년실업자 수는 2004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해 1~11월 중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38.8만 명을 기록

연령별 실업자 수 추이



주 : 2004년은 1~11월의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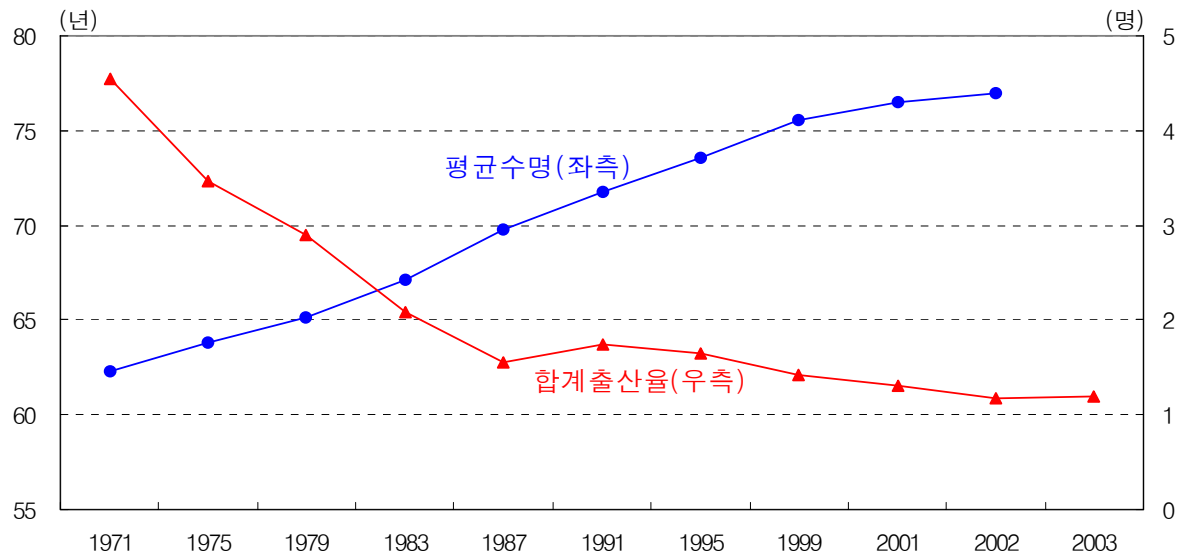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DB

급속한 고령화가 노후불안감을 증폭

□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급속히 하락

-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2년 현재 77.00년으로 1971년(62.33년)에 비해 15년 정도 증가
 - 평균수명은 보건의료 수준, 국민들의 영양상태 등의 향상에 힘입어 1971~79년 2.84년, 1981~89년 4.63년, 1991~2002년 5.28년 증가
-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에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도 1.19명에 그침
 - 합계출산율은 1971년에 4.54명이었으나 가족계획사업 등으로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2.1명)인 2.08명으로 하락했으며, 출산기피 현상으로 1998년 이래 1.5명 미만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율 추세가 지속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

평균수명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DB

□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

- 2004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1.7만 명으로 총 인구의 8.7%를 차지
 -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이행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를 의미하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는 각각 14%와 20% 이상인 경우를 지칭
-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 115년(1864~1979년), 미국 71년(1942~2013년), 영국 47년(1929~1976년), 일본 24년(1970~1994년)인 반면 우리 나라는 19년에 불과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프랑스 41년, 미국 15년, 영국 45년, 일본이 12년 걸리고 우리 나라는 단 7년이 소요될 전망

2. 노후불안과 소비

노후대비로 소비여력이 축소

□ 노후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현재의 소비를 줄여 노후에 대비

-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10개 가구 중 9개 가구 정도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노후대비에 지출
 - 조사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86.3%가 노후대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
 - 월평균 소득의 10% 이상을 노후대비에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1/4에 달했으며, 노후대비 지출이 소득의 30%가 넘는다고 응답한 가구도 3.2%나 되는 것으로 조사
- 통계청의 「2003년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노후대비가 저축의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조사
 - 약 33,000개 조사대상 가구의 68.2%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65.3%를 차지
 -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1999년 사회통계조사」(57.7%)에서 보다 8%p 가량 상승

□ 노후불안이 중산층 이상의 소비 자제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장의 소비침체를 야기

-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일정부분을 노후대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
 - 현재의 소비를 줄여 노후를 대비하는 가구는 연평균소득이 1천만 원 미만과 1~2천만 원인 계층에서 각각 59.5%와 83.2%인 반면, 2~3천만 원, 3~5천만 원, 5천만 원 초과인 계층에서는 88.8%, 94.4%, 93.9%

- 이는 노후불안이 중산층 이상마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데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2004년 중 소비부진이 중산층 이상까지 확산되면서 민간소비는 감소세를 나타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노후불안이 소비심리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

□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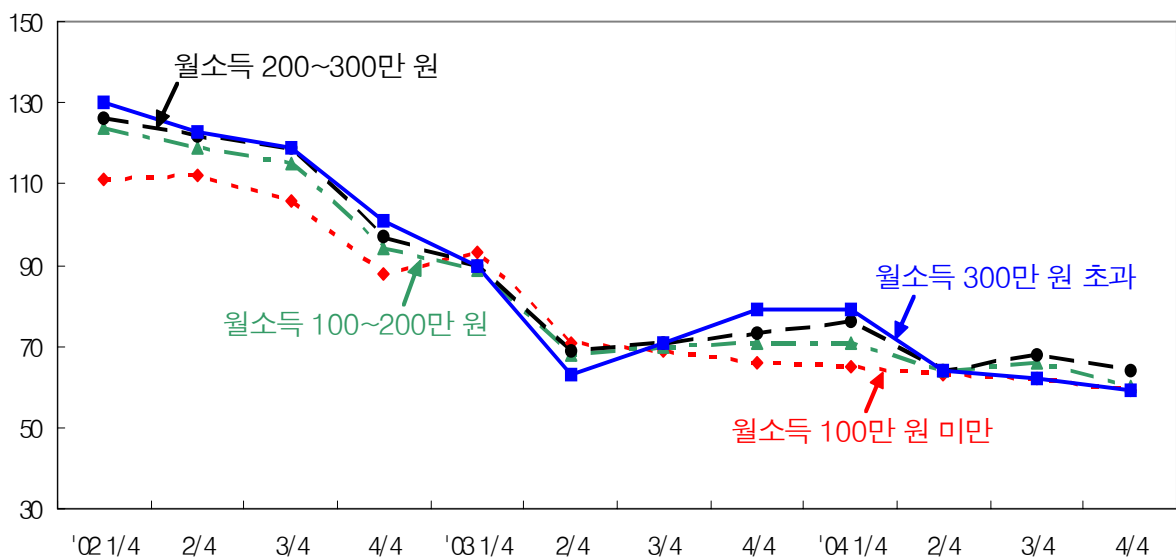
- 소비자태도지수는 2004년 4/4분기 중 39.3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4분기(34.9)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해 작성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 경기, 내구재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리지표로 기준치로 50을 사용
- 소비자기대지수는 2004년 12월 중 85.1을 기록해 1998년 12월(86.7)보다 낮은 수준
- 소비자평가지수는 62.2로 2003년 9월(59.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기대(평가)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면 6개월 후(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관해 현재(6개월 전)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 소비심리 위축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하향평준화

-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지표마저 2004년 2/4분기부터 급격히 악화
- 2004년 1/4분기 중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층과 1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층의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79와 65로 그 차이가 14p에 달했음

- 2/4분기에는 향후경기전망CSI가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전분기 대비 2p 하락한 반면, 300만 원 초과에서는 15p나 떨어져 격차가 1p로 축소
-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는 향후경기전망CSI는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 에 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기준치는 100
- 2004년 3/4분기 중 월평균소득 300만 원 초과와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의 향후경기전망CSI는 모두 62를 기록
- 4/4분기에는 두 계층의 향후경기전망CSI가 각각 59로 전분기대비 3p씩 하락

소득수준별 향후경기전망CS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노후불안을 가중

□ 재정의 불안정성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저부담-고급여의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필연적으로 연금기금의 고갈로 귀결

- 현 국민연금제도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3~5배, 고소득층에게는 1.5~2배, 평균적으로는 3배를 지급하는 체계
 - 그러나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7.8%(2003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연금기금의 고갈을 부추길 전망
- 연금보험료를 준조세로 인식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도 고조
- 국민연금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며, 보험료 강제징수를 비판하는 촛불집회도 강행
 -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0월28일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에 대해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 한국납세자연맹은 11월16일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도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2003년 말 현재,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들(전체 가입자의 58.0%)의 62.2%(619.8만 명)가 실제로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
 - 그런데, 자영업자의 소득관리가 가장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소득과약률도 실제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제대로 된 소득과약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3. 대응방안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 노후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

- 노후에도 근로소득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노후불안의 현재 소비 제약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
-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이 노후대비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인 것으로 조사
 - 전체 조사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절반 정도(48.6%)가 노후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목
-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
 - 노인들은 체력, 학습능력 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축적된 지식, 경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년층과 노인층의 역할조정을 통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벤처 육성

- 고령자들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 노인들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
 -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노인고용을 확대
 - 일본의 경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절반 가량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음
- 자립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벤처 창업 프로그램 등을 육성해 노인취업의 기회를 창출

임금피크제와 역모기지론을 활성화

- 고용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Salary Peak)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

- 임금피크제는 종업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서부터 생산성 수준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
-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우세한 상황
 -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절반 이상(50.7%)이 고용안정성 확보 등의 장점을 들어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고 응답
 -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을 활성화해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역모기지론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 받고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 예정
 - 저금리에 고전하는 은퇴자들이 주택을 생활비 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
 - 역모기지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
 - 역모기지론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방식을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필요
 - 저부담-고급여로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의 연금일부를 부담하는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적립식(Prefunding)과 부과식(Pay-As-You-Go)을 혼합한 수정 적립식

- 적립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는 방식
 - 부과식은 노년층의 연금을 젊은층이 세금형태로 모두 부담하는 방식
- 연금기금의 소진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저부담-고급여의 부과식적인 요소를 제거해 연금 재정방식을 완전한 적립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부분은 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저축하는 방식도 고려
- 자율적인 연금저축이 노년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의 산정에 이용됨으로써 가입자 스스로가 수급액을 결정
 - 자율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혜택도 제공
 - 이러한 적립방식은 국민연금이 가입자 개인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소득의 축소와 누락을 줄여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문제도 해결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도 필요

- 기록적인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부담 증대
-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출산기피 현상은 아이를 낳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양육비 부담으로 낳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출산율 저하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초혼연령 및 이혼율 상승 등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요인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의 증가로 인한 소자녀관의 정착
 -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양육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 1,000개 조사대상 가구의 60.0%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비 증가를 지목

□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세제혜택 등의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

- 파격적인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대폭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
 - 2004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급여도 추가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육아부담 완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신규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에도 효과적

<이상>

주간 금융지표

금리 : 1월 중 국고채 발행 확대 방침에 따라 금리 상승세

	12.31	1.3	1.4	1.5	1.6	1.7
회사채(AA-)	3.72	3.82	3.81	3.80	3.83	3.83
회사채(BBB-)	8.13	8.22	8.21	8.20	8.24	8.24
국고채	3.28	3.38	3.37	3.34	3.37	3.36
콜금리	3.25	3.23	3.24	3.22	3.24	3.20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환율 : 원화, 엔화, 유로화 모두 달러화 대비 약세

	12.31	1.3	1.4	1.5	1.6	1.7
원/달러	1035.1	1038.1	1038.7	1046.3	1058.8	1051.1
엔/달러	102.63	102.78	104.57	104.15	105.01	104.76
달러/유로	1.3554	1.3465	1.3279	1.3261	1.3173	1.3054
원/엔	10.09	10.10	9.93	10.05	10.08	10.03

자료 : Bloomberg

주가 : 거래소는 하락하였으나 코스닥은 정부 정책 기대로 상승

구 분		12.31	1.3	1.4	1.5	1.6	1.7
거래소	종합주가지수(p)	휴장	893.71	886.90	885.19	871.28	870.84
	거래량(만주)		25,257	33,163	34,314	39,470	29,480
	시가총액(조원)		411.4	408.3	406.9	401.6	401.7
	외국인순매수(억원)		995	397	246	-6	178
코스닥지수(p)		휴장	390.40	393.00	399.68	404.15	408.17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주간 경제일지

(1.10 ~ 1.14)

1. 10. (월)

- 국내 보도자료: 2004년 12월 소비자전망조사 (통계청)
- 해외 보도자료: 정보통신 장비 교역 보고서 (OECD)

1. 11. (화)

- 행사: 한미 주요 인사 신년교류회 (낮 12시,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 해외 보도자료: 일본 11월중 경기선행지수 (내각부)
일본 12월중 외환보유액 (일본은행)

1. 12. (수)

- 행사: 전경련 국제경영원 신춘포럼 (오전 11시 30분, 코엑스)
- 국내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상품·서비스수지 (상무부)
EU 3/4분기 GDP(잠정) (유로통계청)

1. 13. (목)

- 행사: 전경련 회장단 회의 (오후 4시 30분, 경제인 클럽)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오후 3시, 중앙청사)
- 국내 보도자료: 2004년 12월 고용동향 (통계청)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2월 소매판매액 (상무부)
미국 수출입 물가지수 (상무부)

1. 14. (금)

- 국내 보도자료: 2004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동향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기업채고 (상무부)
미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상무부)
미국 12월 산업생산동향 발표 (연준)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1999	9.5	58.4	-2.1	0.8	6.3	14.9	13.5	11.3	8.7	0.33	0.34	1,028.1
2000	8.5	41.2	2.0	2.3	4.1	8.6	2.2	5.6	9.4	0.26	0.26	504.6
2001	3.8	43.7	-0.5	4.1	3.8	5.8	6.9	9.6	7.1	0.23	0.23	693.7
2002	7.0	47.3	-0.3	2.7	3.1	11.9	11.5	12.9	6.6	0.06	0.05	627.6
2003	3.1	44.6	2.2	3.6	3.4	8.7	7.9	8.8	5.4	0.08	0.06	810.7
2003.12			3.1	3.4	3.6	3.2	3.0	5.0	5.6	0.08	0.05	810.7
2004. 1			3.8	3.4	3.7	-0.3	2.4	4.9	5.7	0.05	0.04	848.5
2	5.3	46.4	4.5	3.3	3.9	11.5	2.6	5.1	5.6	0.05	0.03	883.4
3			4.4	3.1	3.8	9.2	2.7	5.3	5.4	0.06	0.04	880.5
4			5.5	3.3	3.4	8.1	3.1	5.4	5.1	0.06	0.04	862.8
5	5.5	48.0	6.3	3.3	3.3	8.8	3.9	5.9	5.1	0.10	0.08	803.8
6			6.8	3.6	3.2	7.0	4.4	6.1	4.9	0.06	0.04	785.8
7			7.0	4.4	3.5	13.9	4.6	5.9	4.8	0.04	0.03	735.3
8	4.6	39.6	7.5	4.8	3.5	3.5	4.9	6.3	4.4	0.05	0.03	803.6
9			7.5	3.9	3.2	13.8	5.4	6.3	4.1	0.05	0.03	835.1
10			7.3	3.8	3.3	6.4	5.9	6.6	4.0	0.06	0.05	834.8
11	6.8	3.3	3.3	3.9	0.05	0.03	878.1
12	5.3	3.0	895.9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 단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 산업활동 ◆

[illegible]

[illegible]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1999	24,522	28,463	-651	-5,159	2,040	5,136	8,676	74,055	1,145.4	1,121.84	1,529	-68
2000	12,251	16,954	-2,848	-2,421	12,110	4,285	11,998	96,198	1,259.7	1,101.52	1,485	189
2001	8,033	13,488	-3,872	-1,198	-3,391	1,108	6,583	102,821	1,326.1	1,009.40	1,308	347
2002	5,394	14,777	-8,198	432	6,252	-224	709	121,413	1,200.4	1,012.87	1,439	421
2003	12,321	22,161	-7,611	595	13,909	-207	17,907	155,352	1,197.8	1119.60	1,589	722
2003.12	2,452	2,609	-429	465	1,279	-152	647	155,352	1,197.8	1,119.60	1,589	722
2004. 1	2,344	2,976	-766	353	391	-255	4,129	157,450	1,173.6	1,107.85		
2	2,888	3,000	-464	594	2,483	-303	3,269	163,007	1,174.5	1,072.46		
3	915	2,631	-652	-720	586	-282	3,343	163,557	1,153.6	1,090.00	1,703	783
4	1,142	3,320	-453	-1,445	434	85	2,677	163,635	1,167.7	1,062.08		
5	3,712	3,755	-193	303	-1,591	2,359	-3,810	166,543	1,165.7	1,056.17		
6	2,182	3,338	-859	-21	-2,330	87	28	167,030	1,152.5	1,064.03	1,703	873
7	3,232	4,147	-771	13	-1,682	-584	1,617	168,006	1,168.3	1,041.59		
8	1,057	1,849	-1,090	289	811	25	430	170,492	1,153.8	1,048.48		
9	2,810	3,693	-885	238	-912	280	-384	174,448	1,147.9	1,033.45	1,667	1,020
10	2,403	2,820	-539	155	-661	119	-2,415	178,388	1,126.0	1,059.22		
11	2,943	3,517	-662	323	8,214	664	745	192,602	1,047.9	1,018.32
12	199,066	1,043.8	1,012.07

◆ 주요 국제통계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환율			금리		유가	금
	미국	일본	독일	미국	일본	독일	엔/달러	달러/ 유로	달러/ 파운드	Prime Rate (U.S.A)	LIBOR (90일)	Dubai	
	전기대비연율 (%)		전기대비 연율(%)	전년동월대비 (%)			기말기준			기말기준 (%)		기말기준 (\$/B)	
1999	4.5	0.1	2.0	2.2	-0.3	0.6	102.04	1.0070	1.6176	8.50	6.00	22.90	290.7
2000	3.7	2.8	2.9	3.4	-0.7	1.4	114.87	0.9422	1.4957	9.50	6.40	20.65	272.4
2001	0.8	0.4	0.8	2.8	-0.7	2.0	131.50	0.8904	1.4541	4.75	1.88	18.14	279.0
2002	1.9	-0.3	0.2	1.6	-0.9	1.4	119.33	1.0496	1.6110	4.25	1.38	26.52	344.5
2003	3.0	2.4	-0.1	2.3	-0.3	1.1	106.95	1.2578	1.7850	4.00	1.15	28.52	416.3
2003.12				1.9	-0.4	1.1	106.95	1.2578	1.7850	4.00	1.15	28.52	416.3
2004. 1				1.9	-0.3	1.2	105.85	1.2473	1.8244	4.00	1.13	27.88	402.5
2	4.5	6.3	0.4	1.7	0.0	0.9	109.50	1.2488	1.8674	4.00	1.12	29.41	396.2
3				1.7	-0.1	1.1	103.88	1.2312	1.8454	4.00	1.11	31.16	426.5
4				2.3	-0.4	1.6	110.43	1.1980	1.7786	4.00	1.18	33.25	386.8
5	3.3	1.1	0.4	3.1	-0.5	2.0	109.49	1.2182	1.8314	4.00	1.32	34.97	395.6
6				3.3	0.0	1.7	108.69	1.2185	1.8191	4.00	1.61	31.67	394.3
7				3.0	-0.1	1.8	111.68	1.2017	1.8198	4.25	1.70	36.44	391.1
8	3.9	0.3	0.1	2.7	-0.2	2.0	109.83	1.2185	1.8022	4.50	1.80	35.92	409.9
9				2.5	0.0	1.8	110.91	1.2431	1.8115	4.75	2.02	37.85	418.3
10				3.2	0.5	2.0	105.85	1.2780	1.8377	4.75	2.08	36.85	428.6
11	3.5	0.8	1.8	103.16	1.3291	1.9107	5.00	2.41	36.39	451.0
12	2.0	103.76	1.3558	1.9184	5.25	2.56	34.15	438.5

◆ 주요국 무역통계 ◆

[illegible]